

“요즘 폭 빠진 브람스 곡... 연주할 때마다 놀랍고 감탄하죠”



피아니스트 조재혁 베를린필하모닉스트링과르벳과 협연 9일 광주문예회관

까다로운 테크닉 도전
세계적 앙상블과 연주 기대감
호남예술제 지정곡으로 앙코르

전하기 너무도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라디오에서 듣던 딱 그 느낌이었다. 청취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화를 건네는 바로 그 목소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만난 듯한 편안함이 그대로 느껴졌다.
3일 피아니스트 조재혁씨를 전화 인터뷰했다. 조 씨는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친숙한 이름이다. KBS 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 음악' 수요일 코너인 레저 콘서트 '조재혁의 위드 피아노'를 통해 청취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인터뷰 다음날인 4일 아침, 운전 중 '위드 피아노'를 들었다. 이날 선곡은 베토벤의 '소나타 31번'. 그는 지금까지 한번도 일반 대중 앞에서 연주해 본 적이 없는 곡이라고 했다. 그는 한 시간 동안 설명과 함께 직접 라이브 연주를 들려줬다.
조 씨는 오는 9일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베를린필하모닉스트링과르벳 공연에 협연자로 참여한다. 광주 공연은 지난 2011년 광주시향과 리스트의 '피아노협주곡 1번'을 협연한 데 이어 두번째다.
“협연자로 섭외가 되기 전까지는 명성만 들었지 이들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베를

린 필하모닉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이고, 그 중에서도 각 파트의 수석 연주자들이 구성된 그룹이라 그들과 어떤 연주를 만들어갈지 궁금합니다. 내일부터 리허설에 들어가는데 기대가 많아요. 최선을 다해 즐겁게 연주할 생각입니다.”
조 씨는 이번 공연에서 브람스의 '피아노5중주 f단조 작품번호 34'를 협연한다.
“슈만과 브람스 곡중에서 한 곡을 연주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두 곡 다 모두 좋아하는데 이번엔 브람스를 택했어요. 슈만이 밝은 느낌이라면 브람스는 좀 더 무겁고 깊이가 느껴지죠. 또 피아노의 테크닉 면에서 훨씬 까다로워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달 브람스 '피아노 트리오 1번'을 서울시향 팀들과 연주했는데 그 여운이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브람스의 곡은 질 때마다 놀랍고 계속 감탄하게 되고, 요즘 밤 늦게까지 연습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조씨는 클래식 팬들에게 각인시킨 건 '위드 피아노'다. 음악회에서 해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객석에 앉아 있던 장일범씨가 방송 출연을 제안해 시작했다. 2011년에 시작해 벌써 175회를 맞았다.
“라디오 코너는 궁극적으로는 곡을 소개하는 시간이예요. 청취자들에게도 말하죠. 이 코너는 명연주 시간이 아니라 곡을 같이 알아보고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방송이라 실제 연주하면서 실수도 많이 해요. 방송을 하면서 여러층의 사람을 염두에 뒀죠.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부터 전공자들까지 한

법대 가려 로스쿨 '방향'도
5년째 라디오서 청취자 만나
교수 자리 내놓고 연주 전념

가지씨는 건져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게 청취자들에게 흥미로운가 늘 생각해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고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음악을 어떻게 느꼈는지 가식 없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트로트도 연주하고 그러잖아요 (웃음). 클래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어요.”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한 조씨는 서울예고 재학중 한동일 선생의 권유로 유학을 떠났다. 맨해튼 음대 예비학교를 거쳐 줄리아드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 맨해튼 음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대 후반 법대 진학 준비를 위해 로스쿨 과정을 듣기도 하며 방향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호남예술제 6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이기도 하다. 콩쿠르는 그에게도 낯선 게 아니다. 그는 스페인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1위를 비롯, 모나코 몬테카를로 피아노 마스터스 콩쿠르에서도 수상했다. 콩쿠르 준비를 위해 중 3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3번'을 한달 만에 독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앙코르곡으로 호남예술제 본선 지정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제가 고향이 춘천인데 저희 고장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60년이나 됐다고 하니 대단하네요. 앙코르 곡으로 호남예술제 경연곡 중 한곡을 연주해달라고 해서 소꿉을 선택했어요. 저도 콩쿠르에 나가봤지만 경연을 나가서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요. 음악은 몸에서 자연스레 배어 나와야 하거든요. 경연이 아니라, 연주회에 나와서 자기의 음악을 나누고 내려간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조 씨는 클래식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많이 열고 있다.
“청취자들이나 공연장에 오신 분들이 클래식과 친근해졌다는 말을 하면 뿌듯하고 용기도 많이 얻어요. 클래식 음악을 잘 몰랐는데, 제가 하는 말이나 음악을 다는 이해하지 못해도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을 땐 고맙고 감사해요.”
조 씨는 최근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 2010년부터 맡고 있던 성신여대 교수 자리를 내놓고 올 한해는 연주 활동에 몰두하려 한다. 4월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음악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베를린 필하모닉 수석 악장 다니엘 스타브라바를 비롯해 크리스티안 스타벨만(2바이올린), 나이하르트 레자(비올라), 디트마르 슈발게(첼로) 등으로 구성된 베를린 필하모닉스트링 콰르텟은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2번 f장조 작품 번호 127'도 들려준다. 티켓 가격 8만원~2만원. 공연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러시아의 서정

랑 현악4중주단 정기연주회 10일 금호아트홀



랑 현악사중주단 정기연주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러시아의 서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보르딘의 '현악사중주 2번', 차이코프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을 들려준다. 랑 현악 4중주단은 지난 2009년 결성 후 나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음악회, 바하 '푸가의 기법' 전곡 연주회 등 다양한 음악회를 열어왔다.
멤버로는 한양대·뒤셀도르프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바이올린의 이수연(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수석), 전남대를 거쳐 독일 카셀음대, 뷔르쯔부르크 음대에서 수학한 김재은(아르스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씨가 참여하고 있다.
또 전남대·독일부퍼탈 음대를 거친 비올라의 신정문(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수석), 전남대와 독일 라이프치히 음대에서 공부한 첼로의 윤소희(모나무르 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단원)씨가 함께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2-511-1920. /김미은기자 mekim@

바늘 땀 농뿔 점점이...정직한 노동

변경섭전 29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작가는 소박한 동양 여인의 마음을 바느질 하듯 화폭에 채운다. 한땀 한땀 바느질과 같은 무수한 터치들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점들이 모여 화면을 수직으로 가로지르기도 하고 수평으로 흐르기도 한다. 화폭은 하나의 천이 되고 동양의 정신이 담긴다.
전남대병원 갤러리는 오는 29일까지 변경섭씨를 초대해 '기도를 위하여'전을 연다.
변씨는 '바느질을 위한 드로잉'(Drawing for prayer) 연작을 선보인다.
변씨 작품은 바느질을 연상시키는 작은 점들이 만들어낸다. 화폭에 무수하게 찍히는 점들은 작은 실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천과 같은 이미지로 승화된다. 작은 점들이 많아 질수록 화폭은 한층 더 밝아지고 부드러워진다. 최근에는 빛이 얇은 천을 통과하듯 작품 속에 빛을 담기 시작했다.
작가의 이 같은 작업은 미국에 체류할 당시 경험했던 실타바느질에 근거한다. “실타바



'바느질을 위한 드로잉'
질을 노동의 정직함과 숭고함을 깨닫는 기회였다”라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변씨는 홍익대 미술대학과 전남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문의 062-220-5092.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문예재단 토요일경매 여수서도 진행

21일 예술마루...상설기획전 겸

전남문화예술재단은 그동안 진도 윤림산방에서 진행했던 토요일경매를 올해부터 여수에서도 진행한다. GS칼텍스 예술마루와 공동주최로 3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남도예술은행 그림경매'전을 열고 특별경매를 한다.
1분기 상설기획전은 오는 21일까지 GS칼텍스 예술마루 7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특별경매도 현장에서 열린다.
이번 상설기획전에서는 장복수의 '바라보기'(한국화), 임근재 작가의 '나의 노래-나의 꽃밭에서'(서양화) 등 봄을 맞아 소생하는 기원을 담은 작품 30점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21일 추진되는 특별경매를 통해 판매가 될 예정이다. 경매시작가는 시



장복수 작 '바라보기'
중가격 대비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책정됐다.
또 구매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시를 통한 경매작품 사전공개와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1-280-583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